

후기산업사회 출판의 위상과 진로

뉴미디어와 종이문화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핀다

김홍식

동아출판사 CAPS 개발팀

미디어의 탄생과 소멸이라는 주제로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이매체가 여타의 매체에 비해 월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출판종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종이매체가 계속적으로 미디어의 제왕으로서 위치를 고수할 것이라는 편견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뉴미디어가 이미 종이매체를 압도하여 자리를 굳혔다면 모든 출판종사자들의 설 땅은 이미 축소되었거나 다른 업체에 퍼블리싱이라는 영역을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뉴미디어가 탄생된 지 얼마되지 않은 매체로서 아직 개발하고 적용시키기에 따라 출판인의 훌륭한 벗이 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이야말로 제지술과 인쇄술을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 근대문명을 일으킨 원동력의 한 부분이 되었음을 상기하고, 출판과 뉴미디어의 연결로 새로운 출판혁명과, 나아가 정보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추구할 때다. 물론 뉴미디어의 구체적인 수단은 컴퓨터와 정보산업분야의 발전에 따른 부가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과 퍼블리싱을 담당하는 출판계가 이 매체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출판업계와 제지업계는 뿔레야 뿔 수 없는 공생관계를 가지고 수백년을 함께 해왔다. 그것은 활자미디어가 종이를 빌지 않으면 표현수단이 없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뉴미디어가 탄생되고 난 후의 최근 현황을 보면 종이의 소모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출간되는 책의 종류도 점차로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출판왕국이라 일컬어지는 일본의 경우도 종지와 책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의미하는 것은 반드시 뉴미디어에 대해 종이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우수하고 효율이 좋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산업화, 정보화와 더불어 사람들은 더욱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고 이를 상대적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매체는 역시 종이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선택과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것이며, 한편으로 정보사회의 이행과정의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과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취득하기 쉽고 기록성과 보존성

제지술과 인쇄술을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 근대문명을 일으킨

원동력의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출판인들은 출판과 뉴미디어의

연결로 새로운 출판혁명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그것은

출판혁명을 통해 출판이 정보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또한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 뛰어난 것은 종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종이라는 매체의 물질적 특성과 자기매체 혹은 전자매체의 물질적 특성으로 인해 두 가지의 매체는 다른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다. 기록성, 전달성, 신속성, 정보의 가공과 특화 등은 궁극적으로 종이매체가 전자매체를 도저히 따를 수 없지만 취득 및 휴대의 용이함이라는 측면에서는 종이 매체가 편리함이 사실이다. 또한 상당 기간 동안 화면이나 브라운관을 통해서 이미지를 재현하는 것은 지금의 인쇄효과보다 뒤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종이 매체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뉴미디어가 아무리 각광을 받아도 궁극적으로는 종이매체와의 상호보완 속에 각매체의 역할이 조정될 것으로 여겨진다.

종이 생산자로서의 제지업계는 새로운 지종의 개발과 그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뉴미디어 시대에 대응하는 것이겠지만, 종이의 중간소비자의 입장으로서의 출판업계는 제지업계와 동일한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종이는 퍼블리싱을 위한 원재료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판업은 전자미디어에 대한 보다 궁극적이고 진일보한 대응과 수용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뉴미디어라고 해서 기존 종이와 활자에 의한 표현으로서의 출판이 갖는 기능과 역할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은 아니다.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동일하되 다만 그 수단과 방법 그리고 형태상의 변화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뉴미디어가 전개된다 하여 출판 그 자체가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을 갖는 뉴미디어를 출판계가 주체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정보사회의 주축이



어야 할 출판이 그 역할을 크게 수축시키고 존립의 기반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뉴미디어에 관한 한 출판인은 출판을 위한 훌륭한 매체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이의 주체적인 수용과 발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매체의 태동시마다 심각한 자기 위협을 느꼈던 신문 및 방송은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적응하여 왔는가를 참조하면서 출판계에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를 보다 현실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점에 매우 긴요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는 뉴미디어와 정보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원칙적인 사항들만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개발과 기술 진보에 관한 제고; 어떤 매체를 통해 어떤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라는 원초적인 출판기획에서부터 제품의 패키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출판분야에 활발히 이용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 기술환경과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주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하드웨어적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아이디어의 창출과 실현이라는 소프트웨어적인 관심과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매체에 관한 기술적 관심은 제고되어야 한다.

둘째, 출판물의 디지털화 및 데이터베이스화; 기본적으로 자료는 살아서 움직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언제든 재가공되고 변형될 수 있으며 재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집적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판물을 디지털화해야 하는데 이것을 실현하는 수단이 컴퓨터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컴퓨터를 빌어서 과거의 낡활자를

대체하고 과거의 손작업에 의하던 수동사식기를 대체한다고 해서 즉, 출판물 생산수단을 위한 목적으로만 출판 부문에 컴퓨터가 쓰여진다고 해서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출판에 있어서 컴퓨터의 이용은 기존 편집공정이나 편집 이후의 제작공정을 대신하거나 줄인다는 대체개념도 중요한 것이지만, 살아있는 자료를 만들어 내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는 것에 더 큰 부가가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차 뉴미디어를 통한 정보서비스 및 뉴미디어 출판물개발의 기간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출판인력의 정예화; 컴퓨터를 통해 자신의 편집, 혹은 출판 아이디어를 수용·창출할 수 있는 감각을 갖고 있는 정예의 출판종사자들이 많지 않으면 출판은 뉴미디어에 관한 한 항상 아웃사이드적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출판인력의 전문화와 고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 말은 기존의 출판종사자가 비전문적이고 무능하다고 공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스킬 중심이고 종이제작 중심의 태도에서 광범위한 정보처리 능력을 갖고 새로운 매체에 적응하고 그를 출판에 응용할 창조적 아이디어와 안목을 갖고있는 출판 종사자가 출판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출판정보의 교환과 출판 네트워크의 구축; 정보의 생성과 가공, 그리고 배급이라는 본질적인 기능이 출판의 기본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출판계의 정보 흐름 양태는 매우 폐쇄적이다. 출판계의 공통 이슈를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폐쇄되어 있음으로 인해 서로 유용한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 시점에서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다. 누군가가 이미 가지고 있는 똑같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른 출판사가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소모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 비밀이나 결코 공개할 수 없는 정보는 자신의 출판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도서관에 가거나 다른 경로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서로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 출판사가 한꺼번에 묶여지는 출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 출판 네트워크는 모든 출판인과 정책 당국의 중장기 프로젝트로서 정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될 과제이다.